삼성생명 차명주식 배당금 흐름 추적

삼성특검 '비자금 관리용' 계좌 유입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7일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이건희 회장 일가가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식 배당금의 흐름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생명 지분 16.2%를 가진 전·현직 임원 10여명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삼성 전략기획실에서 '비자금 관리용'으로 만든 차명 의심 계좌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돈 흐름의 '종착지'를 따라가고 있다.

수사진은 이 배당금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주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로부터 제출받은 이 회장 일가의 계열사 지분내역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비자금이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계열사 지분 확대에 쓰인 의혹도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과 전용배 상무 등 전략기획실(옛 구조본) 핵심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의 '떡값 로비' 등 뇌물제공 의혹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참고인 진술과 제출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사 대상자와 적용법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軍 대장급 4명 프로필

폭넓은 경험 문무겸비한 지휘관

김태영 합참의장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한 문무겸비형 지휘관으로 꼽힌다. 부하들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스타일이며 부하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자상하다는 평이다. 부인 이범숙(53)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서울(58) ▲육사 29기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1군사령관

지와 덕 겸비한 작전·정책통

임충빈 육참총장

지와 덕을 겸비한 작전 및 정책통으로 통한다.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창의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평이다. 지난해 국제사관학교협의체를 결성하는 등 국제감각도 있다는 평가다.부인 최옥례(57) 씨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충남 천안(58) ▲육사 29기 ▲1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전력·작전 분야 보직 두루 거쳐

정옥근 해참총장

전력·작전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이지스구축함(KDX-Ⅲ), 214급 잠수함 국내 건조 등 해군의 주요 전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부인 장은숙(55) 씨 사이에 2남.

▲경남 창원(56) ▲해사29기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교육사령관

대미관계 정통한 전략 전문가

이성출 연합사 부사령관

군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대미관계에 정통하다는 평이다. 검정고시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사단장 시절 내내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현장중심의 지휘관으로 꼽힌다. 부인 박정신(55) 씨와 2남. ▲전남 신안 ▲육사 30기 ▲육본 전략기획처장 ▲5군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中 병력 증파…티베트 긴장 고조

독립 요구 시위 확산 사망·부상자 속출

티베트(시짱·西藏) 시위대 투항 시한인 17일 자정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라싸에 치안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라싸에서 발생한 티베트 시위대의 분리독립 요구 시위가 쓰촨성 등 중국 주변지역 티베트인 밀집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무장경찰들이 투항 시한을 넘긴 18일부터 일제 수색에 들어가 무차별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아직도 라싸에 잔류하고 있는 한국 교민 10여명의 신변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창바 푼콕 시짱자치구 정부 주석은 1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티베트 시위대에 대해 최투 통첩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투항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창바 주석은 "투항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처를 베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군경의 실탄 발포설과 관련, "중국 공안당국은 적법한 법 집행을 했을 뿐 어떠한 살상용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강력 부인했다.

그는 이어 "폭도들의 범죄행위로 민간인 1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차량 56대와 민가 214채가 화재와 파괴행위 등으로 파손됐다"고 말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티베트 시위대에 대해 17일 자정까지 투항할 것을 촉구하고 투항하거나 다른 범법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방 외신들은 티베트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라싸에 추가 시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치안병력이 추가 파견되고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티베트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해 16일 오전 10시께 쓰촨성 아바에서 티베트 승려와 주민 1천여명이 동조 시위에 나서면서 저지하는 공안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시위대가 관공서와 경찰서를 공격하고 경찰 차량에 방화를 하자 현지 공안들이 발포를 하면서 티베트인이 적어도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바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은 "인민해방군 차량 수백대가 밤새도록 아바 시내로 진입했다"고 전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쑤성 마추에서도 시위대 300-400여명이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벌이며 정부 청사를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고 자유티베트캠패인(FTC)이 전했다. 특히 티베트 학생 100여명이 간쑤성 성도 란저우에 위치한 베이시 소수민족대학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위가 대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밖에 칭하이(青海)성 등 티베트와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도 티베트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동조시위가 발생했다고 티베트 관련 단체들이 주장했다. /연합뉴스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발생한 폭력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왕 밍밍씨가 16일 라싸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중근 유해 발굴 24일부터 시작

北도 참여할 듯

최근 아파트 부지공사로 훼손돼 논란이 빚어졌던 중국 뤼순(旅順) 안중근 의사 유해매장 추정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17일 "한국에서 파견하는 발굴조사단이 오는 24일 뤼순 현지에 도착해 유해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에서 파견하는 조사단은 국가보훈처 관계자 및 탐사기술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북한도 이번 발굴조사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발굴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뤼순감옥 뒤편에 자리잡은 안 의사 유해매장 추정지는 작년 10월께부터 진행된 아파트 부지공사로 현장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발굴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연합뉴스

프랑스 지방선거 좌파 사회당 승리

16일 실시된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의 사회당이 집권 우파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

이날 오후 11시30분(한국시각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90%의 개표율을 보인 가운데 집계된 현황과 출구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야당인 사회당은 48.7%의 득표율을 보여 47.6%를 획득한 대중운동연합(UMP)을 누르고 승리해 주요 도시의 시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좌파인 사회당은 파리시를 비롯해 37년간 우파의 아성이었던 툴루즈와 리옹, 캉, 아미엥, 랭스, 페리괴, 앙제, 포 등 주요 도시의 시장직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 시에서는 사회당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후보가 재선에 성공해 앞으로 7년간 더 파리 시정을 이끌게 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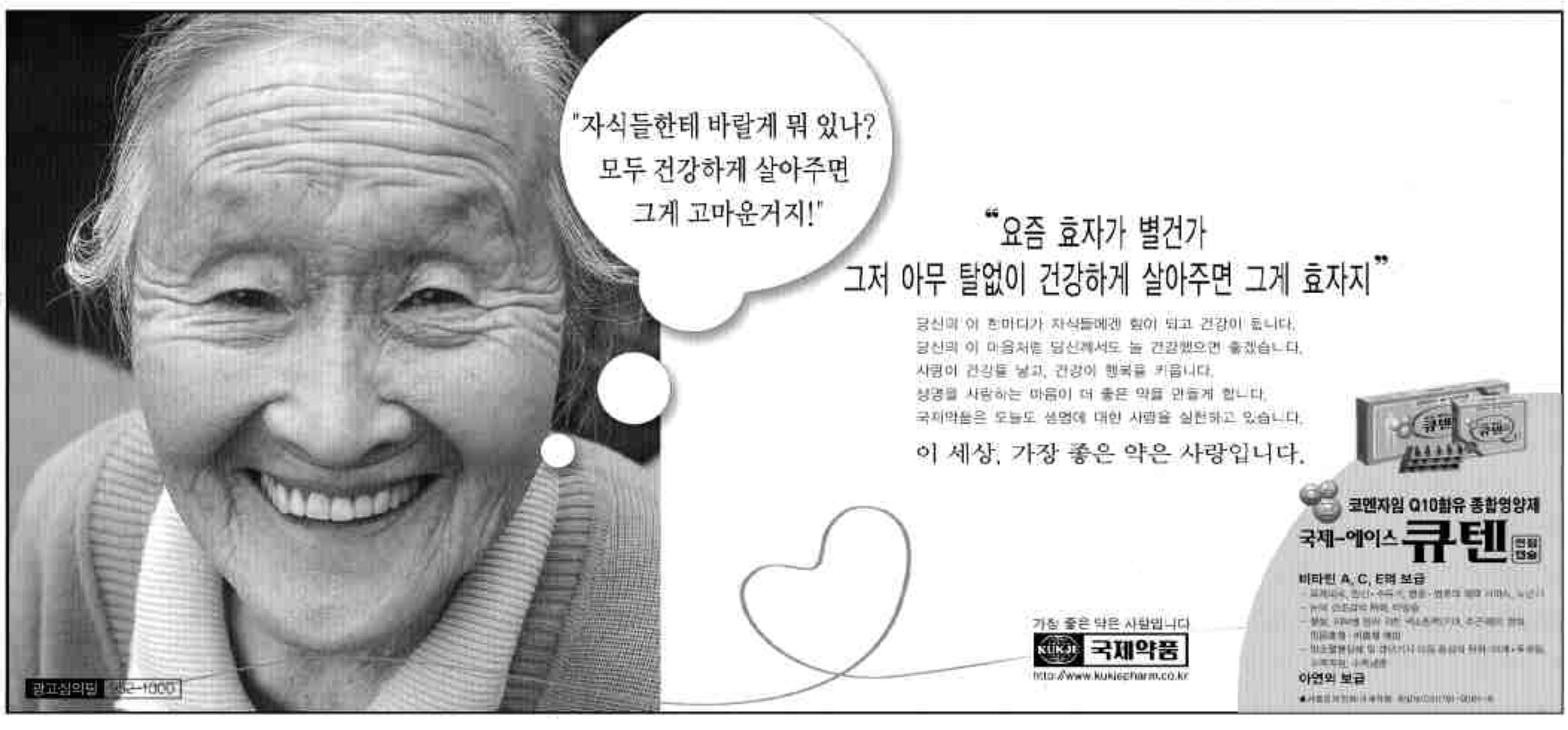
언제까지 싸움만… 힐러리-오바마 갈등 골 깊어져 민주 고심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16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개전 5주년을 앞두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깜짝 방문하는 등 중동과 유럽국가 순방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경선의 향배를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다 두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인신공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두 대선주자들은 매케인 의원의 선거운동을 오히려 돕는,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인신공격을 하는 양상으로까지 선거운동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케인은 일찌감치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정한 상태로 본선에 대비, 해외순방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외교 등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힐러리와 오바마 선거진영에서는 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서로 총공세를 준비중이다.

힐러리의 선거 공보책임자인 하워드 울프선은 "희망의 정치를 약속하며 시작했던 선거운동이 이렇게 됐다니 실망스럽다"며 "이는 클린턴 상원의원에 인신 공격을 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오바마 진영에서도 이날 오전 힐러리의 세금환급 문제와 백악관 시절의 기록,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많은 기부금을 낸 기부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연합뉴스